

34 사자들의 승리

Chapter

삿 2:6~23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179장 (말씀하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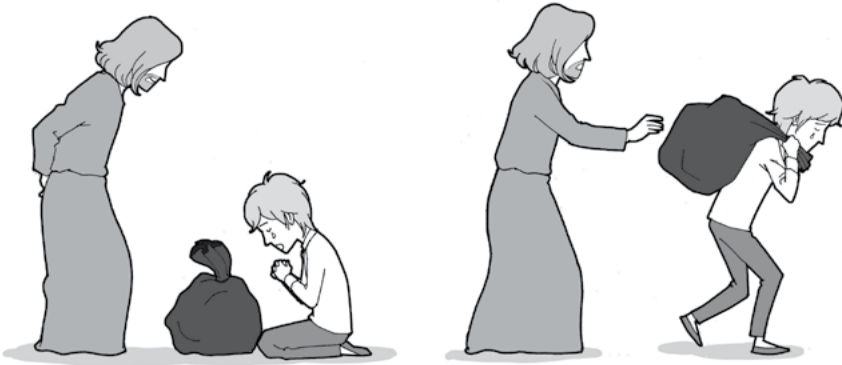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인간의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원을 베푸심을 압니다.
2.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만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1. 어떤 죄로 인해 징계 받고 주님께 철저히 뉘우치는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2. 그 죄를 다시 반복했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은 죄는 '재활용 금지'입니다. 제발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전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불순종과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로릇하던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통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로 인한 승리와 평화의 시간이 계속되면 이스라엘은 또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을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와 같은 불순종과 징계, 간구와 구원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한결같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첫 사사 옷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원손잡이 용사 예훤은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으며,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기드온은 삼백 명의 용사로 메뚜기 떼 같았던 미디안의 군대를 전멸시켰으며 삼손도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는 바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Likewise the Spirit also helps in our weaknesses. For we do not know what we should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makes intercession for us with groanings which cannot be uttered (Ro 8:2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삿 2:14~15)

(삼하 8:6, 14)

(신 28:7, 25)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사사기 2장 1~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 1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리해 보세요.
 - 1) ()에서 나오게 하시고,
 - 2) ()에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 3)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을 지키십니다.
- 2절을 읽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했는지 정리해 보세요.
 - 1) 이 땅의 거민과 ()을 세우지 말라. 즉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 2) 그들의 ()을 헐라. 즉 신앙의 순수성을 굳게 지켜야 한다.
 - 3)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라. 즉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어떤 책망과 징계를 가져왔나요?
 - 1)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
 - 2) 이방 민족이 너희 ()에 ()가 될 것이다.
 - 3) 이방 민족의 신들이 너희에게 ()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이방 신들의 멍에 걸려 고통을 당할 것이다.
-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소리를 높여 (), 하나님께 ()를 드렸습니다.
-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나는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내가 습관처럼 반복해서 행하는 불순종과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정말로 미워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마음을 휘저으면



예전엔 집집마다 음식찌꺼기와 허드렛 물을 모아 두는
구정물 통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대를 넣고
휘저으면 금새 더러운
것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에는
온화한듯 보이지만
자극이 주어지면 금새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튀어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
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 17:9~10)

필립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 승리를 확신하는 자가 승리한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 하면 '마틴 루터' 한 사람 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 사에 등장하는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 열다섯 살 아래였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는가 하면 두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유언에 따라서 부부기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필립 멜란히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루터의 어린 후배이자 친구였던 멜란히톤은 늘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말 할 때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란히톤은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통해 그를 격려 하였고 결국 마틴 루터도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22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